

2014년 시험유형이 바뀌는 관계로 1,2차 준비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어떻게, 어떤 커리큘럼으로 공부해왔는지의 내용역시 생략하겠습니다.(3년의 기간을 봐왔기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 따라하시게 되면.. 보시는 선생님들 역시 3년이 걸릴 수 있기에...^^)

제가 더 갖고 있는 것으로, 선생님들께 나눠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며 겪어본 실패 경험과 그래서 피해야할 것들, 그리고 그 과정상에서 얻은 노하우들과 시험장 상황 등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1.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인지**다!

아래 서술된 모든 것의 요약 및 핵심은 결국 메타인지의 중요성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합격전략 1번째, 시험의 성격을 알고 그에 맞춰 공부하는 것이 합격전략 2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가 아침에 잘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 혹은 새벽에 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시험이 아침에 치러지니 밤에 공부가 잘됨에도 불구하고 시험 바이오투 맞춘다며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잠을 자려 노력하고, 잠이 쏟아지는 아침때에 공부를 억지로 하려하다 몇 개월을 그냥 날려 보냈다는 말을 한 수험생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다. 잠이 안오는데 잠자려고 노력하고.. 졸린데 안자고 공부하려다 졸고..이것이 반복되는 상황.... 이걸 아닙니다. 물론 고치면 좋지만, 그것이 잘 안될 경우는 과감히 잘되는 시간대에 공부를 해서 더 능률적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시험장 들어가면 비정상인 이상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여 시험문제를 풀고 나오게 됩니다. 저 역시 1차 시험 전날 3시간 자고 응시했습니다.ㅠ)

또한 저 역시 그러했지만 공부를 하다보면, 혹은 여러 강사 선생님들의 문제를, 혹은 전공도서를 보면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만나올 것 같고, 나온다 하더라도 지극히 중요성은 떨어질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안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지나치기엔 왠지 쑥스럽고, 신경쓰이며, 다른 사람들은 다 알 것 같고,.. 그래서 나만 뒤쳐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결국은 끝까지 모두 보며 진행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시험장가서 확인하면 그 부분 미출제.. -.,-

요약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기에 본인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공부, 준비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자신을 믿고, 과감하게, 확고한 결단력을 내리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런 이야기이지만.. 혹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강사선생님의 강의를 정말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 주저 없이 중단하시거나 바꾸시길 권장합니다.(물론 너무 쉽게 바뀌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게 되면 절대 안됩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한뒤 결정을 내리고 바로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 2.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이다!

첫 시험 응시 때와 이번 2차 논술시험에서 다시 한 번 크게 느꼈던 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내용들은 현 시기(1~2월) 기본이론인 기본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

다. 기본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있습니다. 잔가지에만 매달리다보면 중요한 기둥과 전체를 못보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이 충실하면 어떠한 잔가지의 내용이 나와도 유추할 수 있어서 맞출 수 있습니다.

2012 2차 시험 로웬펠드와 루켄스 문제의 경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1~2월 기본이론 강의 때 한번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상기하여 풀었다고 하였습니다. 2차 시험 대비인 11월에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문제풀이강의가 시작되는 7월부터 모의고사 기간인 11월까지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계속 끝까지 기본이론서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기본이론 내용들이.. 바로 시험문제들입니다.

### 3. 시간보다는 **분량! 로테이션**을 얼마나 잘 돌리느냐가 관건이다!

합격 후, 그리고 시험을 준비할 때에도 가장 많이 질문 받은 내용 중 하나가 하루에 얼마나 공부 하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은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보다는 분량! 무엇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암기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5시간동안 한국미술사를 공부하겠어'보다는 '오늘은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정리하겠어' 혹은 '도자기와 불상부분을 깔끔히 정리하겠어'가 더 구체적인 목표로 세울 수 있어서 공부하는데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욱 구체적일수록 좋으며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야 성취감 역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용시험은 사실 말이 임용시험이지 거의 암기시험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암기내용이 많은 시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험에서 암기내용을 얼마나 잊어먹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는 무엇보다 로테이션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복 복습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통으로 교육론만 공부하기. 하루 통으로 교육학만 공부하기 보다는 전공과 교육학의 지속적 병행, 전공의 영역도 골고루 일주일동안 계속적으로 하기를 추천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회화 판화	디자인 공예	동양미술조 소	교육론 감상 비평	서양미술교 육과정	전공강의	보충
교육학 강의	교육학 강의	교육학 (3~4시간)				

9~10월 모의고사기간 중에 위의 표를 기본으로 2달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철저히 공부, 복습을 했었습니다. 하루 12시간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1/3~4은 교육학을 나머지는 전공공부를 했으며, 위의 표보다 더 구체적으로 1주는 동양미술중(~통일신라까지) 서양미술은 (~로코코까지)로 범위를 세워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3주에 1번 크게 돌려 전영역 전체범위를 복습했고, 이후 3주를 또다시 1번 복습, 다음에는 2주씩 1번 복습을 2번한 후 시험이 있는 그 주는 가볍게 전체를 돌려보아 9월부터 11월 시험전날까지 전영역 복습을 5번 돌렸었습니다. 모르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확실히 믿지 않았기에(제가 안다고 생각한 것도

모의고사를 통해 틀린 것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계속적으로 복습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봤던 것이나 아는 것을 틀리는 일은 없게 하자 하였습니다. 아! 일요일의 경우는 계획을 비워놓아 주중에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하거나 추가 정리 혹은 더 복습할 것이 있으면 그때 보충 식으로 채워나가는 것으로 활용했습니다.

몰라서 틀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알았던 것을 어설프게 정리해놔 틀리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망각하지 않게끔 지속적 전 영역 복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4. 그럼 언제까지 복습해야 하는가? **자동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줄 수 있을 때까지!** 디지게...

2x2=4, 7x7=49 구구단은 수억만번을 어렸을 적부터 했기에 물으면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장안에서는 긴장과 함께 낮은 환경 때문에 아는 내용도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읽고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는 객관식 시험이 사라지고 직접 머리에서 인출하여 직접 쓰는 시험으로 바뀌는 서답형의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보기를 지워서 추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복습으로 문제를 읽고 바로 답을 내뱉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절대 실수를 범하지 않고 맞출 수 있습니다. 2차 논술시험준비 경우 이와 비슷했습니다. 하나의 주제가 주어지면 바로 관련 키워드들이 줄줄 적을 수 있게끔 복습, 암기하였었습니다.

#### 5. 보고 이해하는 머리와, 안에 있는 있는 **지식을 끌어내어 적는 머리는 다르다!**

내용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얻는 과정과 그 지식들을 다시 인출해내는 과정은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 당장 인상주의에 관련해서 아는 내용들을 서술하라하면 생각 외로 몇자 못 적고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선생님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식을 인출해내는 과정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강의를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과정에 익숙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복습 때 바로 내용들을 눈으로 보지 말고, 먼저 생각하고 속으로 혹은 작게 중얼거리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하고 생각한 후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펜으로 키워드만이라도 직접 작성하면서 복습하는 방법 또한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6. 필독서는?

① 한 번에 끝낸다고 생각하고 보자 - 정말 중요한 책들 외에는 다시 볼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한번 보고, 끝내고, 버린다는 생각으로 정독, 정리하는게 효율적인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읽다가 몰랐던 부분이나 새로운 부분들은 기본서(저는 학원선생님 교재를 기본서로 하고 보았습니다) 기본서에다가 따로 추가 필기를 하거나. 컴퓨터 타이핑을 통해 정리, 기본서에 추가하였었습니다.(도판포함입니다)

ps : 이것저것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일을 잘못하는 성격이기에 따로 서브노트 혹은 필독서 정리 노트를 만들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바로 추가하여 철할 수 있도록 교재를 3개 구멍을 뚫어 큰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의 책이 되면 잘 안보게되어.. 저는 여기서도 메타인지를 사용해 기본서에 모든 내용들을 추가 정리해두어 계속적 복습을 하였습니다.

**② 중요한 부분은 꼼꼼하게! 나머지는 가볍게! 그리고 사전형식처럼!** -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 중에서도 특히 미술전공 수험생들은 워든지 하나하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야 마음이 놓이는 경향이 큼니다. 그래서 한국미술사 경우 선사시대부터 엄청 파기 시작하여 통일신라 때에 이르면 진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서양미술사의 경우도 이집트 그리스 메소포타미아를 처음부터 완벽히 정리하다가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를 만나 잠시 반가워 하다 이윽고 바로크를 맞이하면서 다시 탈진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ㅎㅎ 그럼 이 앞부분이 과연 시험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답입니다. 앞부분이 시험문제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꼼꼼히 정리해나가는 것... 이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 뭔가 찝찝한 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메타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력!!!!

필독서 읽기 방법 2가지를 감히 제안해 봅니다. 첫째는 중요 부분을 먼저 읽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한국미술사 경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조선을 먼저 다 읽고 난 뒤 그 뒤 통일신라와 고려를, 그리고 삼국, 선사시대순 읽기순입니다. 둘째는 사전처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학원강의를 듣고난 뒤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더 알고 싶었던 부분만을 발췌하여 사전처럼 필독서 서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맨땅에 헤딩격으로 전공서적을 접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 그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잡힌 후 전공서적읽기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모든 책은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야 직성이 풀렸기에.. 이런 경우는 강약조절을 하며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부분은 집중, 정리해가며 읽고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스킵하면서 읽어 나가면 좋을 듯합니다)

### **③ 그럼 무엇을 얼마나 봐야하는가?**

공부 기간 중, 그리고 합격 후에 이에 대한 질문역시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대답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 책을 본다고 그 곳에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니며, 그 책을 안본다고 합격과 직결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능력 범위 안에서 과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보기를 추천합니다. 어찌됐건간에 전공 도서들을 기준으로 문제는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드렸듯 많이 보기보다는 하나를 제대로 완전히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술사의 경우는 이젠 기본서적이 되어버린 안휘준 선생님의 책과詹슨책은 꼭 읽으시고 시간되시는 대로 많이 접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술사가 워낙 양이 방대하고 지식의 유창성을 필요로 하기에 여러 책들을 많이 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렇다고 미술사만 많이 파시면 그것도 안됩니다! 균형적으로!!! 편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스터디를 통해 정복하는 것도 효율적)

## 7. 서브노트

서브노트에 관해서 저는 필수는 아니되 선택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메타인지입니다. 자신에게 서브노트제작 및 그것이 공부가 된다면 하는 것이 맞고, 맞지 않는다면 제작안하시면 됩니다. 서브노트 안 만들고 합격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저 포함..)

서브노트는 다른 사람들의 지식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바꿔 정리해 나가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이가 만든 서브노트를 본인의 기본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강력하게 비추천을 드립니다..

## 8. 스터디

스터디 역시 위와 같습니다. 메타인지!

워낙 혼자하는 것에 익숙해서 스터디는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차 논술반때 처음으로 스터디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터디란 것이 단지 지식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위로와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파이팅 넣어주는 것과, 열심히 하는 스터디원들을 보며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내용들을 다른 스터디원들도 알고 있을 때 더 느낄 수 있었으며, 스터디원에게 조사한 내용들을 설명해줌으로써 그 부분은 더 정확히 잊지 않기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터디를 한번쯤은 꼭 해보셔서 어떤 것인지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9. 모의고사 - 잘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자! 하지만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다!

모의고사를 치를 때면 항상 1등을 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 한 주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보낼 수 있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제 자신이 출제자가 되어보는 안목을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실제 이번 시험에서는 제가 예측한 시험문제들이 여러 출제되어 기분 좋은 쾌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실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모의고사는 약점체크검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 무엇과 무엇을 헛갈리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어설프게 외웠는지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맞고 틀리고의 중요성보다는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약점들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점들은 따로 적거나 문제 옆에 메모해두어 반드시 챙겨야 실제시험에서 실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10. 실기

이번 3차 실기에서 변별이 꺾 되어 그 중요성이 좀 올라간 것은 사실 같습니다. 하지만 실기에 과하게 매진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는 확신합니다. 작년까지 논술성적이 당락의 큰 결정을 지었다면 이번 시험은 1차 서답형 점수가 크게 좌우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론시험의

중요성이 계속 더 크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3년 전에 잠시 실기학원을 다녔다가 이후 계속 손을 놓고, 이번 1달 동안 실기를 준비하며 마음 고생이 정~말 심했었습니다. 본인의 실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여름이 오기전까지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묘의 신 **박민우** 선생님과 디자인 신 **권슬기** 선생님 아래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실기를 배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경우 공식에 의한 화면구성 및 색채처리, 자주 사용되는 재질표현습득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옛날 입시그림보다는 현재의 디자인입시작품을 보면서 레이아웃을 따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인체소묘의 경우도 사진을 보며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실제 인물의 크로키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실기는.. 자신이 약한 부분을 미리미리 1~2과목 정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장수생들의 경우..점차적으로 발상과 표현으로 입시를 치른 초수 수험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먼저 배워놓는 것이 좋을 것도 같습니다)

## 11. 지도안 및 수업실연

지도안은 매년 형식이 바뀌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도안 문제를 받고 나서는 조건도 많고 새로운 형식이라서 많이 당황하였었는데.. 차근차근 조건에 따라 하나씩 대응해 나가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습니다. 또한 지도안 점수 변별은 다른 영역보다 크지 않기에 2차시험 기간동안 충분히 연습하고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실연은 3~4번의 연습을 하고나면 대부분 다 잘하십니다. 수업실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의 소통, 전달력 같습니다. 일방적 지도보다는 학생참여 및 지식발견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이번 3차문제 지도안에서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귀납적 사고하여 내용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발문을 적는 내용이 나옴)

수업초반과 동기유발의 경우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회지도, 상호작용도 패턴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2 면접

서울의 경우 이번 면접은 큰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최대 10점 이상 변별이 나기도 했습니다. 형식도 구상형과 즉답형 각각 2가지로 나와 이전과 다른 형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대부분 윤선생님의 면접책을 보며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책에 나온 모범답안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실 사례들을 통해 대답하는 훈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채점자에게 실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바로 현장에 투입시켜도 좋겠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업실연도, 면접도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 살펴본 결과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그 전달력과 논리력, 표정(자신감 및 절실함), 인상 등이 더 중요하고 그것들이 눈에 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내용은 후에 선생님들끼리 2차 준비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면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자신의 뚜렷한 교직관을 하나 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에 응용,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Thanks to

그동안 믿고 지켜봐주신 부모님과 시험100여일 남겨놓고 학원 간판디자인 맡겼으나, 맛있는 음식자주 사주었던 동생, 없었으면 큰일 났을뻔한 자랑스런 친구들 명중이, 남궁, 상범, 동우. 당근과 채찍 중 아주 강한 채찍을 맡아주셨던 **장지연 선생님**과 당근을 담당해주셨던 **위상 선생님**, 소묘의 신 박민우 선생님과 디자인신 미쓰 권. 슬기선생님, 제 우상 이경범 선생님, 그리고 제 어머니와도 같은 김상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입시동안 엄마역할 맡아준 태희누나 우리3차 스테디원 윤혜, 나연, 창섭 쌤 고맙습니다. 생애 첫 스테디원 다운, 지율, 미라, 은혜 쌤도 고맙고, 보고 싶습니다~ 정신적 지주 성신이형과 어엿한 선배교사 고은님, studio SEUL멤버 수형이 누나와 미연이 누나, 호인, 윤정, 나영, 윤정, 찬영, 미리, 화서, 주현 쌤 같이 도와주셔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칩니다.**

### 합격자확인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